

News

은행권 가계대출 5개월 만에 증가... '대출 빚장' 더 풀릴까

한겨레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올해 4월 말 기준 1,060조 2천억원으로 전월비 1조 2천억원 증가... 최근 은행권 규제 완화 영향
신용대출 영업 강화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로 기타대출 잔액 감소 폭 축소... 당국은 향후 추이를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

선거 앞두고 힘 받는 충청권 지방은행... 자본금 마련부터 난항

조선비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움직임 가속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 내년 중 금융당국에 인가신청 제출한다는 방침
다만 자금 조달이 관건이 될 전망... 최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규모제한 푸는 내용 골자...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615억원 횡령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 횡령 또 적발

서울신문

우리은행, 지난 2월에도 직원 횡령 사건 발생... 직원 A씨, 올 1~2월 ATM에서 4억원대 금액 횡령... 사측은 이달 초 면직 처리 및 전액 회수
다만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억 미만 사안이라 별도 공시하지는 않고 법률상 횡령이 아니라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는 입장

자영업자 대출 느는데...배드뱅크 설립 무산?

뉴시스

자영업자 대출, 올해에도 가파르게 증가...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달까지 매달 2조원 넘게 증가하는 모습... 잠재 부실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9월 이후 부실 속출 우려
다만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배드뱅크 설립 내용 제외돼 설립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 제기...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

반려동물등록 '코주름·홍채'로 한다...尹정부 펫정책

국민일보

윤석열 정부, 펫보험 활성화 공약 관련 반려동물의 코 주름이나 홍채로 동물등록하는 시스템 구축하기로 추진... 생체 정보를 이용한 동물 등록
업계에서는 전자 장치 사용 필요성 제기해와...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방안 포함 진료기록 관리 강화 및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할 방침

메리츠화재, 공매도 타깃 우려에 10% 급락

한국경제

메리츠화재, 이달 말 코스피200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매도 타깃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전일 10.46% 하락한 36,800원에 마감
그간 코스피200 편입 기대감으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추가 상승세...당국은 작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부분적 공매도 허용 중

미래에셋, 여의도 IFC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동아일보

미래에셋자산운용, 여의도 IFC를 4조 1,000억원에 인수... 올 3분기 내 IFC거래 마무리 예정... 금리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4조 4,000억원보다 인수가격 낮춰...
향후 사모 리츠 신규 설립해 IFC매입 자금 마련할 계획... 브로필드자산운용은 6년 만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매각 차익 확보

尹정부, 코인 품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제정

국민일보

윤석열 정부,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하고 내년까지 법 제정하겠다는 방침... 가상자산 거래계좌 발급기관 확대 예상
한국은행 발행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검토... 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포섭할 방침도 마련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